

‘구자욱 분노’ 팬들도 감독도 이해했다…심판은?

삼성라이온즈 팬들이 단단히 뿔났다. ‘라이온즈 올드팬클럽’ 일부 회원들이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에 ‘선수에게 반말하는 송수근 심판 징계 대상. KBO는 실행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이들은 홈경기에 맞춰 라팩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KBO와 심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대구 삼성과 두산베어스 경기에서 불거졌다. 이날 5회말 구자욱이 삼진을 당하고 곧바로 헬멧을 벗어 내팽개치며 화를 냈다.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2사 주자 2, 3루의 기회에서 불이라고 생각한 공이 스트라이

삼성 팬클럽 회원들 ‘송수근 징계’ 플래카드 내걸고 1인 시위 KBO와 심판진 향해 압박…구자욱 “내 행동에 죄송한 마음”

크로 판정돼 삼진을 당하자 거칠게 역을 함을 표현했다.

송수근 주심은 곧바로 구자욱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구자욱은 “불이잖아요”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라이온즈 올드팬클럽은 “앞선 1회에서도 구자욱의 타석에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심판이 선수에게 반말로 ‘나가, 나가라고’ 하면서 선수와 구장에 있던 야구 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오심으로 경기의 흐름에 지장을 줬다”며 “심판의 자질 부족과 편파 판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KBO에서 반응이 없다면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를 치르다 보면 선수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구자욱의 행동에 대해) 나무라지 않았다. 그만큼 경기에 집중했고, 절실했다고 본다. 시즌 내내 구자욱은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

쳐왔다. 마음이 상하겠지만 평상심을 찾아야 한다”고 두둔했다.

구자욱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도 있다. 그래도 심판의 권한이다. 당시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헬멧을 던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 심판과 팬들께 죄송하다. 나중에 만나면 내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심판과 선수간 앙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

팬들은 화가 났고, 감독은 선수를 두둔했다. 선수 본인도 죄송하다고 했다. 이젠 KBO와 심판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maeil.com



라이온즈 올드팬클럽이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자욱을 퇴장 시킨 심판의 자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위답게 뒷심 강한 삼성

SSG전 8회 강민호 투런으로 비겨 올 시즌 정규리그 홈경기 마무리



삼성라이온즈가 1위 팀의 저력을 펼쳐 보였다.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

중력을 유지한 삼성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쉽게 지지 않는 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삼성전은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삼성 선발로 나선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은 6⅓이닝 4피안타(1피홈런) 2사자구 5탈삼진 3실점(2자책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펼쳤다.

선제점은 SSG의 차지였다. 4회초 삼성의 수비 실책에 이어 최정의 안타가 나왔고 박성환의 땅볼 때 3루 주자 추신수가 홈으로 들어왔다.

반면 삼성은 병살타, 삼진, 주루사까지 답답한 공격을 이어가며 좁혀

수를 내지 못했고 7회초 한유섬에게 투런포까지 맞으며 0대3으로 계속 끌려갔다.

하지만 ‘약속의 8회’ 삼성은 2사 후 구자욱의 시즌 22호 우월 솔로포로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피렐라가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 출루한 데 이어 강민호가 동점 투런포까지 때려냈다. 구자욱과 강민호 모두 이를 연속 홈런을 쳐냈다. 이후 오재일과 김상수가 연속 안타로 1사 주자 1, 3루 역전 찬스를 이어갔지만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8회 2사 후에도 선수들이 보여준 집중력은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올 시즌 정규리그 홈경기를 모두 마무리한 삼성은 포스트시즌에서 팬들과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다.

김우정 기자

프로야구 전적(24일)

장소	팀	스코어	R	H	E	B
대구	SSG	000 100 200	3	4	1	2
	삼성	000 000 030	3	7	2	5

▶홈런=한유섬 29호(7회2점, SSG), 구자욱 22호(8회1점) 강민호 18호(8회2점, 이상 삼성)

니콜슨 35점…가스공사 ‘함박웃음’

서울 삼성 썬더스에 95대86 승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앤드류 니콜슨의 폭발적인 득점력에 힘

입어 홈경기 2연

패를 끊고 5할 승률에 복귀했다.

가스공사는 24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서울 삼성 썬더스를 95대86으로 꺾었다.

지난 20일부터 치러진 홈 3연전에서 가스공사는 창원 LG에 19점 차 패, 전주 KCC에는 1점 차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에 빠졌다.

승리가 간절했던 가스공사는 이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치열한 경기를 치렀고 원하던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가스공사 니콜슨은 35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에이스 면모를 제대로 보였다. 조상열 역시 17점을 기록하며 깜짝 활약을 펼쳤다.

가스공사는 1쿼터부터 신승민의 자유투 득점과 니콜슨과 전현우의 연속 3점 슈트가 터지며 14대7로 앞서 나갔지만 막판 희스에게 연속 4점과 이동엽의 역전 자유투까지 허용하며 삼성에 끌려갔다.

가스공사는 2쿼터 초반에도 삼성의 기세를 막지 못하면서 18대24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상열과 알렉산더가 분전하며



24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가스공사 니콜슨이 덩크슛을 꽂아넣고 있다. KBL 제공

28대27로 다시 경기를 뒤집은 가스공사는 니콜슨의 돌파 득점과 전현우의 3점으로 경기를 리드해 나갔다.

2쿼터 막판 김낙현이 발목을 다치면서 잠시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다.

3쿼터에서 가스공사는 희스와 김시래에게 6점을 내주며 58대60으로 역전당하는 등 치열하게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3쿼터 후반 전현우의 3점과 알렉산더의 덩크와 자유투 득점으로 분위기를 다잡은 가스공사는 74대62로 다시 삼성을 따돌렸다. 4쿼터에도 기세를 몰아 종료 3분 전 89대74까지 벌리면서 승기를 잡았고 그대로 추격을 따돌리면서 승리를 거뒀다. 김우정 기자



고진영이 24일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임희정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한국 선수 LPGA 투어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사진은 고진영.

LPGA 한국 선수 200승 주인공은 고진영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통산 11승…다시 세계 1위 올라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 패거리를 이뤄냈다.

고진영은 24일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6천72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

십(총상금 2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임희정(21)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한국 선수 LPGA 투어 통산 200승을 달성하는 영예를 누렸다.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0만 달러(약 3억5천만원)를

받고 다음 주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한국 선수들은 1988년 3월 고(故) 구옥희 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협회장이 스탠더드 레지스터 클래식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따낸 이후 33년 만에 투어 통산 200승을 채웠다.

고진영은 LPGA 투어 통산 11승으로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세리(25승), 박인

비(21승), 김세영(12승)에 이어 신지애와 함께 다승 공동 4위가 됐다.

고진영은 “3라운드까지 4타 차여서 잘 따라가면 2등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쳤다”며 “프로 돼서 처음 치른 연장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했는데 (임)희정에게 미안한 결과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aeil.com

대구FC는 파이널A·포항은 파이널B로

K리그1 시즌 최종전서 둘다 패 대구 3위…AFC 챔피언스리그 다뤄

프로축구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와 포항은 24일 열린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하지만 대구는 K리그1 파이널A에 진출했고, 포항은 이날 패배로 파이널B로 밀렸다.

대구는 24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3라운드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했고, 포항은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이로써 대구는 13승10무10패 승점 49로 3위로 파이널A에 진출했고, 포항은 11승9무13패 승점 42로 7위에 머물렀다.

포항은 2017년 이후 4년 만에 파이널B로 떨어졌다.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작은 희망이 있었으나 패배와 함께 파이널A 진출 기회도 날아갔다.

지난 20일 울산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4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던 포항은 이날 전반부터 적극적으로 몰아붙였지만 수비수 그랜트의 뜻하지 않은 자책골로 고개를 숙였다.

파이널A에 진출한 1~6위 팀은 시즌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

스리그(ACL) 진출권을 다투고, 파이널B에 속한 7~12위 팀은 K리그2(2부) 강등을 피하기 위한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모두 5경기씩을 치르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초에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발표하고 파이널A 6개 팀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2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